

**코오롱제약 | 비코그린S 캠페인**

코오롱제약이 여성 변비 해결을 위해 '잠자는 장 근육을 깨우자' 캠페인을 시작한다. 변비약 '비코그린S' TV 광고를 통해 변비 해결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배를 쥐어짜는 자극적인 약 대신 멈춰 있는 장 근육을 움직여 배변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코그린S는 장 근육 전체에 고루 작용하는 신기술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배변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적은 복용으로 확실한 과변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정제 타입으로 여름 휴가지에서도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다. 코오롱제약 측은 "비코그린S는 여성 변비 질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량, 정성 조사를 실시해 변비약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집약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 힐링타임 아이스티**

오뚜기가 6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힐링타임 아이스티' 홍보 행사를 열었다. 힐링타임 아이스티 출시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맛의 아이스티를 고객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 준비됐다. 아이스티의 할인 판매와 함께 시음행사가 진행됐다. 아이스티는 홍차에 얼음을 타서 차게 마시는 음료다. 힐링타임 아이스티 5종은 과일 과즙의 함량이 높아 유자, 복숭아, 매실, 오미자, 석류의 진한 맛이 특징이다. 힐링타임 아이스티 1스틱(14g)에는 비타민C 100mg이 함유돼 있다. 이는 비타민C 1일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한다. 또 캐러멜 색소를 넣지 않아 홍차 본연의 색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원더풀론 | 조손가정 가족여행 후원

원더풀론이 서울 서초 구립방배북지관과 함께 조손가정을 초청해 사회공헌 행사를 주최, 후원했다. 1박 2일 일정 동안 전남 담양의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경유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세대 간 화합을 이루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웃음치료를 초청해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행에 참가한 가족들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죽녹원·소쇄원을 경유한 이번 행사에 만족감을 표했다. 원더풀론은 이번 행사 외에도 조손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 검진, 집수리 봉사, आयु와 같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조손가정을 1년간 꾸준히 돕게 된다.

대우건설**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대규모 푸르지오 타운이 형성된 텃밭 안산시에서 올해 첫 재건축 사업인 안산 원곡 연립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안산 원곡 연립 1단지 재건축 사업은 7만6640㎡ 부지에 총 1653가구,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14개동과 부대 복지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수주금액은 3038억원에 달한다. 일반에는 전체 1653가구 중 조합원 1108가구를 제외한 545가구가 분양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49.9~84.9㎡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999년 안산 고잔 1차 분양 이후 지난해 11월 분양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를 포함해 안산에서만 총 10개 사업장에서 1만1030가구를 분양했다.

**KTБ자산운용 | KTБ드림콘서트**

KTБ자산운용이 지난 6월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빌딩에서 KTБ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 300명이 함께하는 'KTБ드림콘서트'를 개최했다. KTБ자산운용과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함께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드림콘서트'의 일환이다. 찾아가는 드림콘서트는 KTБ자산운용의 후원을 받아온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개최하는 공연으로 KTБ자산운용 사내 회의실 간이무대에서 시작됐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소속 폴하우스 어린이 합창단, 성악가 최승원, 슈퍼스타K 출신의 가수 김국환 등이 출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에라주리드 와인 | 베를린 테이스팅 1위**

칠레 에라주리드 와인이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 (Berlin Tasting-Seoul)'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테이스팅 행사에는 국내 호텔 소믈리에, 유통 채널 바이어, 한국 국제소믈리에협회 등 와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모인 60여명의 평가단이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와인들의 이름을 가리고 맛과 향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칠레 에라주리드의 '돈 막시미아노 2009'가 최고점을 받았다. '세냐1997'이 2위, '샤또 마고 2003'이 3위에 올랐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샤또 라피트 1995'와 '샤또 라뚜르 2006'은 공동 9위에 머물렀다.